

■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



하얀 매화 꽃사태를 벌여 놓은 '청매실농원' 풍경이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시킨다. 매화축제가 끝나는 오는 주말께 매화는 그 농염한 자태가 절정에 이른다. /광양=최재호기자 choi@kwangju.co.kr

전라도 맛 기행

광양 금목서 식당 '숯불구이'



‘천하일미 마로화적’

(광양의 옛 지명)

핏기 보일 듯 맛들 할 때 먹어야 최고

나들이는 눈만 아니라 입도 즐거워야 제격이다. 불고기는 전국 어디에나 있는 흔한 음식이지만 광양불고기는 조선시대부터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광양 불고기의 역사는 조선시대 김해 김씨 성을 가진 내외가 광양에 살고 있을 때, 인근에 벼슬하다 귀양 온 선비들이 천민의 아이들을 가르쳤다. 이에 김씨 부부가 그 보은으로 어린 송아지와 연한 암소를 잡아 갖은 양념을 하여 찰숯불을 피우고 구워 석쇠에 구워 대접했다고 한다. 그 선비들 중 관직에 복귀하여 한양에 가기도 광양에서 맛 본 그 고기맛을 못잊어 '천하일미 마로화적'(마로는 광양의 옛 지명)이라 하며 광양의 불고기맛을 그리워 했다고 한다.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읍사무소에서 걸어서 5분거리인 금목서 식당은 천하일미 마로화적의 맛을 재현하고 있다. 마당에 건강과 행운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목서'가 그 자태를 뽐내고 있고, 고기집 답지 않게 깔끔하면서도 고급질의 편의를 위한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고기가 나오기 전 깔리는 밑반찬이 예사롭지 않다. 시금치로 만든 영양강, 4년 묵힌 김치, 매실장아찌, 젓가락질을 쉬지 않으면 차차 숯불구이 먹기 전 배가 부를 수 있으니 자제력이 필요하다. 별장계 달궈진 찰숯이 들어오

花 ~ 눈보다 더 흰 꽃, 음 ~ 꽃보다 진한 향

수그러들던 추위가 아침, 저녁으로 다시 날을 세우고 여린 봄볕을 해집고 들어온다. 이미 온줄 알았는데 완전한 봄은 아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잡고 봄의 손을 당긴다. 그 무엇보다 봄이 정말 봄 다워지는 것은 광양 백운산 자락 섬진마을에 이르렀을 때다. 이곳에 한바탕 하얀 매화 꽃사태를 벌여 놓은 다음에야 봄은 봄으로서 진정 의미있는 봄임을 시작한다. 연분홍꽃 저고리와 청보리 녹색차마로 곱게 단장한 백매화 검은 고목에 안개비가 살포시 내린다. 심숙곳은 섬진강 살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갓 북아낸 하얀 팝콘같은 꽃잎이 청보리밭으로 떨어진다. 흰눈이 내린 뒤 솜사탕을 꽃아 놓은 듯 마을을 하얗게 덮칠만 한쪽의 수채화가 봄날 백운산 자락에 내걸렸다.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매화마을. 매화가 자천으로 핀다고 해서 마을이름까지 '매화마을'로 바뀌었다. 이곳은 영호남이 만나는 화계장터가 있는 경남 하동과 광양을 잇는 백운산을 뒤로 하고 앞으로 지리산을 마주하고 있는 66가구가 움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마을이다. 이 마을 매화의 결정체는 산중턱에 자리잡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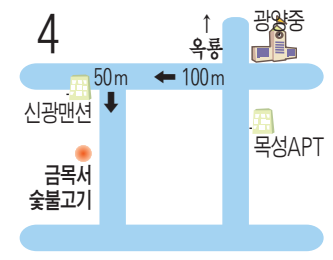
흐드러진 홍·청·백매화 한바탕 꽃잔치 달빛에 실려오는 향기가 매화의 '진수'

'청매실농원'이다. 10만여평의 농원에 만개한 홍매화, 청매화 백매화가 손님을 맞는다. 매화 너머로 보이는 섬진강 풍경이 한 폭의 그림 같다. 농원은 지금 매화축제(25일까지)가 한창 진행중이어서 평일에도 꽃구경 인파로 넘쳐난다. 다모 활영지에 서면 지천으로 꽃망울을 터뜨린 매화가 마치 하얀 바다를 연상케 한다. 이처럼 그림같은 풍경으로 인해 청매실 농원은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명세 감독의 '첫사랑'과 '흑수선', '취화선', '다모' 등 10여편의 영화 촬영이 이곳에서 이뤄졌다. 매화는 고래로부터 한파를 뚫고 피어나는 절개와 지조로 인해 문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다. 퇴계 이황은 이질에 걸려 고생할 때 자신의 피폐함을 매화에게 보이기 싫어 분재를 다른방

으로 옮겨오는 정도로 매화를 인격체로 대하고 '매형(梅兄)'이라 불렀다. 고려시대 정도전도 "/>

돌러보니 이른 매화구경을 나온 여인들이 서늘이 천천히 내려가는 중이다. 여인의 향인지 매향인지 구별이 어렵다. 본격적으로 자태를 선보이기 시작한 매화들 곁에 서서야 그것이 여인의 화장 냄새가 아니라 매향임을 알았다. '야향(野香)'은 달빛 어스름한 저녁 멀리서 은은하고 청아하게 풍겨오는 매화 향기를 일컫는 말이다. 밤이 깊어 사위가 적막할 때 비로소 먼 곳에서도 스며드는 은은한 향기가 말로 매화의 진수를 올 때는 매실농원에서 밤 11시까지 불을 밝혀 매화구경을 할 수 있도록 해 양향의 매력에 빠질 수도 있다. 매림(梅林)을 거닐면서 봄기운에 녹아있는 매향에 젖어들면 정신이 몽롱해진다. 더욱이 매화송이 하나씩 따서 술잔이나 찻잔에 띄어 놓으면 향과 어울리는 술과 차의 맛이란 봄이 오기 전에 꽃 세상의 아늑한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사치일 듯 싶다. 춘심(春心)을 못견디게 자극하는 그 향기, 수많은 문사들이 맥 못추고 술에 취해 시심을 내뽐게 한 매화꽃은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르는 자태를 뽐낼 것이다. /광양=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맛 :★★★★
분위기 :★★★★
가격만족 :★★★★
(★ 5개 만점)



대인동삼일부동산
☎(TEL)223-1140, 5210 TEL 011-602-253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
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
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
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
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있는 저희 부동산
안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등공인중개사
☎(TEL)383-5221 TEL 011-609-5221
● 건물투자
● 땅투자(상무지구)
● 상가투자(상무지구)
● 사무실(상무지구)
● 공장,창고 및 기타
● 기타투자

정우부동산
☎(TEL)675-4788~7 TEL 011-603-4788
건물매도
토지매매
임야매매
생산지지

중개법인 리치부동산관리(주)
☎(TEL)233-9311~3
화순군 남면 대곡리 청용골
농업보호구역
평당 30,000원
시설물:파이프비닐하우스
600평(300평x2)
주택 20평
전기시설 설치됨(16KW)
전화 설치됨
절반이상 녹차식재(3년)

첨단월계공인중개사
☎(TEL)972-4585 TEL 011-604-6205
급매매
첨단삼동
첨단인근 30m도로점
1000평 공장 창고부지직할
첨단중심 상업지역
첨단 원룸 건물급매
첨단 인근 자연·생산지지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3114-6103
건물
평
주유소 전문중개
공상 급매
빌딩 임대

알파공인중개사
☎(TEL)974-0228 TEL 016-602-9937
상업용건물
토지매매
골프연습장 부지

건물
매매
실버타운용
건물 최적지
(대형 원룸 B/D 기능
:연5% 수익)
5만평 공원 및 노인 병원 옆
대(상업지역) : 363평
건물 : 1300평(7층/3개동)
35m대륙면, 롯데마트,
CGV영화관, 롯데세네마,
특수조리점, 상점,
행정타운(공시중) 등 인근
감정가 45억 / 매가 35억
용자 17억 현금 18억